

—

대외정책:

시진핑 3기 중국 대외 정책 전환이
초래할 리스크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

김 동 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조교수



미중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국제 체제 차원에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보 질서도 재편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각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이 변화에는 중국의 대외정책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본문은 시진핑 주석 집권 후 미국의 대 중국 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 기조 변화를 회고한 후, 2022년 20차 당 대회 개최를 전후한 시기를 기점으로 중국의 대외 정책이 전보다 적극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살펴보고 중국의 대외 정책 전환과 이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예측해 보고자 한다.

I. 시진핑 주석 집권 후 중국 대외 정책 변화의 큰 흐름 회고

시진핑 주석이 18차 당 대회를 통해 중국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한 후 그의 국제 정세에 대한 기본시각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표현은 “백 년 동안 없었던 대변혁(百年未有之大变局)”일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시기는 2008년에 발생했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미국에서도 미국 패권 쇠퇴론이 제기되던 시기였다(Layne, 2009; Chase-Dunn, Kwon, Lawrence and Inoue, 2011). 당시 중국도 미국의 패권이 점진적으로 쇠퇴하여 결국 미중 패권 전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여 대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추측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미국연구소 미국정치연구실의 장원종(张文宗) 주임이 2009년 이미 “향후 20년 내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 체제는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고 신흥 강대국의 굴기는 다극 세계의 도래를 예상하게 한다. 미국의 쇠락은 불가피한 것이고 특히 미국 경제는 과거 30여 년 동안 쌓인 구조적 약점으로 약화되어 재정위기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망한 것을 들 수 있다(张文宗, 2009:6). 중국은 이러한 국제 정세에 대한 기본 판단을 토대로 국제 사회에서 성장한 중국의 힘에 부합하는 지위를 추구하는 외교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중국의 대미 인식 변화와 외교정책 조정은 다시 미국의 반응을 초래해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중 정책을 본격적으로 변경시켰다.

당시 미국 학계에서는 미국의 대 중국 정책 방향을 둘러싼 토론과 재검토가 진행되었고, 미국 정치 엘리트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중국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은 분명히 인지하면서도 이것이 중국의 굴기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졌던 것으로 관찰된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무역전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대 중국 압박을 시작하자, 오바마 행정부와는 많이 다른 트럼프 스타일의 압박에 직면해서 중국은 우선 당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어떤 중국 학자가 미국의 전면적 대중 압박이 시작되자 중국을 도와주는 친구가 없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조치들이 이처럼 독한 데 놀랐다고 개탄한 것이 인터넷에 회자되었고, 미국의 대 중국 압박 조치 직격탄을 맞은 화웨이(华为)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도 미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조치가 이렇게 독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任正非, 2019).

트럼프 정부의 대 중국 압박에 직면해 중국은 초기에는 표면적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거나, 심지어 트럼프 개인에게 직접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면서 미국을 설득하려고 시도했었다.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중국이 향유해 왔던 경제 발전과 국가 현대화 목표 달성에 유리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 후 강력히 제시한 중국몽(中国梦),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的

伟大复兴)과 같은 정치 아젠다로 인해 미국의 공세에 약한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일 수는 없었고, 다시 도광양晦(韬光养晦)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이처럼 중국이 미국과 타협을 원하지만 미국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미묘한 상황에서 코로나 19의 충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연임을 자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한층 더 강경해지고 이념화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는 “중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에 의한 위협이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직접 중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을 위협의 근원으로 지목했다(Wray, 2020), 국무장관 폼페이오(Michael R. Pompeo)도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정치 체제를 직접 비판하고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을 분리하려는 인식을 내비쳤다(Pompeo, 2020).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 말기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까지 고조되자 중국은 전보다 훨씬 더 강경한 대응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중 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했다.

실제로 바이든이 당선된 후 중국 학계에서는 바이든 취임 후에 미중 관계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중국인민대학 진찬룡(金灿荣, 2021) 교수는 “중국이 계속 강대해지는 추세,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상대로 보는 인식과 미국 사회의 중국에 대한 태도 등 세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겠지만,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국의 정책 예측가능성과 연관성 그리고 중미 관계의 안정성은 증가할 것이며 양국 간 대화도 부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했다. 중국정법대 한셴둥(韩献栋, 2020) 교수도 “중국정부는 이미 트럼프 정부와의 협력은 포기하고 새로운 미국 정부의 출범을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이 이긴 것은 중국 정부 기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평가했다. 하지만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취한 일련의 조치와 대중 정책 기조는 중국을 크게 실망시켰다. 이 실망이 분노로 바뀌어 2021년 3월 알래스카에서 개최된 미중 2+2 고위급 회담을 통해 공개적으로 표출되었다.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 기조와 구체적인 조치를 보면서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보는 대중국 기본 인식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The White House, 2022), 대 중국 압박도 지속될 것이라는 현실을 확인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미국에 대해 유화적 외교 정책으로 대외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대중 압박에 직면해서 중국은 처음에는 당황했고, 미국이 중국 정치체제까지 공격하는 것에 분노했으며, 바이든 정부 출범에 기대를 걸었지만 곧 실망했다. 이후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혹은 미중 전략적 경쟁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고 어떠한 대응을 통해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승리할 것인지 집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II. 시진핑 집권 3기 미국에 대한 전면적 반격을 결정하고 실행

중국은 국내정치적으로 20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것을 준비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외교가 불가능했던 시기를 활용해 미국에 대한 전면적인 반격에 나설 것을 결정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관찰된다. 우선 주목할 것은 중국이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全球发展倡议),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全球安全倡议),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全球文明倡议) 등을 연달아 발표하여 향후 중국 외교의 명분을 축적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 세 이니셔티브를 “중국이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중요한 국제 공공재(中国为国际社会提供的重要公共产品)”라고 설명한다(中国外交部, 2023).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중요한 국제공공재를 미국이 제공했고 이를 통해 국제질서를 유지해 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생각하면, 중국이 세 종류의 이니셔티브를 선포한 것

을 미국은 중국이 미국과 전략적 경쟁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다.

둘째로 중국은 중국이 직면한 최대 모순은 미국이고 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협력 가능한 모든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통일 전선(统一战线)적 사고를 토대로 가능한 모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중국은 우선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반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미 진영을 공고화하고 있다. 2023년 3월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를 방문해 중러 관계가 공고함을 과시하면서 중러 양국이 미국에 공동으로 대항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新华社b, 2023). 또 중국은 2018년 이미 시진핑 주석이 직접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와 지역 정세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중국 당과 정부가 중북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켜나가는 데 노력한다는 확실한 입장은 불변할 것이고, 중국 인민의 북한 인민에 대한 우호정서도 불변할 것이며, 중국의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지지도 불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央广网, 2018). 이 기조는 계속 이어져 중국은 북한에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축전을 보내고, 북한은 이를 공개하면서 감사를 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북중 관계가 공고하다는 점을 과시하고 있다(박광연, 2023).

한편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 프랑스와 경제와 기술 협력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과의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경쟁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외교적 목표이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국제 체제의 다극화를 강조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독자적 입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럽 국가를 설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선물하는 방식으로 유럽 국가들과의 연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후 “대만 갈등에서 미국을 추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언급을 하고 미국의 대한 유럽의 독자성을 강조한 것(신기섭, 2023)은 중국의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성공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여러 지역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지위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아직 엄격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유지하면서 20차 당 대회라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 발생 이후 첫 해외 방문지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선택했다. 주지하는 것처럼 중앙아시아는 냉전 시기에 소련 연방의 구성 부분이었고, 소련 해체 후에도 러시아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던 지역이다. 그런데 2022년 9월 시진핑 주석의 중앙아시아 방문을 통해서 과거와는 사뭇 다른 현상들이 관찰되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시진핑 주석의 방문에 대해서 최고급 국민 대우를 한 것부터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각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찍은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모습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각국에 대한 영향력이 심각히 감소했고 그 자리를 중국이 대체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할 수 있는 사례들이 다수 관찰된 것이다.

중국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후 아프가니스탄에 발생한 권력 공백도 메울 의지가 있음을 피력했다. 원래는 미군 철수로 아프가니스탄에 발생한 공백을 메우는 데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과 경쟁을 할 것인지 주목되었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자연스럽게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중국이 주도권을 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가 2022년 3월 24일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여 아프가니스탄 임시정부 대리 부총리, 대리 외무장관 등과 만나 아프가니스탄 전후 복구와 지역 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주제로 논의했다(中国外交部, 2022). 7월 28일에는 상하이 협력기구(SCO) 회의 개최를 계기로 왕이 외교부장과 아프가니스탄 임시정부 대리 부총리가 다시 만나 인도주의 원조와 경제 재건에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新华社, 2022). 이는 결과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중요한 전략적 거점 중 한 곳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철수와 러시아의 부재 상태를 중국이 메우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국제 여론에 충격을 준 또 하나의 사건은 중국이 사우디와 이란 간 중재에 성공하여 양국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뉴스였다(新华社a, 2023). 탈 냉전기 우리들에게 익숙했던 그림은 미국이 중동 지역의 분쟁국 정상을 워싱턴으로 불러서 협상을 진행한 후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평화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완수한 후 두 분쟁국 사이에서 환하게 웃는 위치에 중국이 자리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미국의 전략적 중심이 중동을 떠나서 인태 지역으로 이동한 점, 바이든 정부의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한 비판과 홀대, 이란 핵 협상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갈등 지속 등 요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막론하고 이 사건은 중동에서 미국의 공백을 메우려는 중국의 시도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한 시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중동 지역 내 핵심 동맹국인 사우디와 중국 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우디가 위안화로 원유 결제를 허용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다(Said, 2022)는 예상이 한층 더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박도 존재한다. 일부전문가는 “결프만 국가들은 위안화로 원유를 거래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주장한다(Blas, 2023). 그렇지만 현재의 페트로 달러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 왔던 사우디가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위안화로 원유 결제를 허용할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충격과 의미는 심대하다. 여기에 브라질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하면서 달러에 기반한 무역체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 뿐 아니라 군사 안보적 연대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중국과 싱가포르는 2021년 2월 24일에 이어서 2023년 4월 28일에도 4일간 일정으로 해상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했다(Wang, 2023).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중국이 시진핑 집권 3기 시작과 함

계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고, 실질적인 정책들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은 통일 전선적인 사고를 토대로 각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면서 미중 간 전략 경쟁 상황에서 중국의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전략적인 거점 지역에서 미국의 공백을 메우는 데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달러 패권을 흔들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방식을 통해 미국에 대한 전면적인 반격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III. 중국의 대외 정책 전환이 한국에 초래할 리스크와 영향

상술한 중국의 대외 정책 전환은 다양한 차원에서 한국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 측면을 살펴보자. 본문에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한 것처럼 중국은 현재 적극적 정책 추진으로 대외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이 북핵 문제나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유는 한반도는 지정학적·전략적으로 미중 전략적 경쟁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므로 미국도 중동이나 아프가니스탄과는 달리 한반도에서까지 전략적 수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도 특히 북핵과 관련된 문제에서 중국의 개입이나 중재를 원하지 않고 미국과 직접 담판을 희망한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2022년 11월 15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 데 대해 시진핑 주석은 “남북관계를 한국이 적극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배지현, 2022).

둘째, 중국의 적극적 대외 정책으로의 전환은 동북아 지역 안보 질서 차원에서 한중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이 세계 각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미중 전략 경쟁에서의 우군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탈피한 시점과 중국이 적극적 대외 정책으로 전환한 시점이 맞물리면서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훨씬 어려워졌지만 동시에 더 중요해진 시점이 도래했다.

셋째,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 정책이 전 방위적으로 추진되는 상황 하에서 중국의 의도(intention)는 명확해졌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중국이 이런 전방위적 전략적 확장을 유지할 능력(capacity)이 있는지, 중국이 천명한 중요한 국제공공재 제공을 위해서 자원을 계속 투입할 것인지, 중국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까지 전략적 공간을 확장하려 계획하고 있는지 등이다. 과거 중국은 현실적 제약 요인과 국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개입은 자제해 왔다. 하지만 미중 전략 경쟁 본격화에 따라 중국의 대외 정책이 적극적으로 전환되면서 중앙아시아, 중동, 동남아, 남태평양, 라틴 아메리카 등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외교·군사 등 영역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중동 지역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고, 동남아에 새로운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해야만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한국이 세계 각 지역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이 초래할 리스크에 노출되는 상황이 대폭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대외 정책 전환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한반도나 동북아 지역질서 차원에서 발생 가능한 중국 리스크에 대비할 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한국의 경제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광연. “시진핑, 5일만에 김정은에 또 친서…‘북한 규탄’ 힘 못쓰는 안보리”, *경향신문*, 2023년 4월 18일.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304181347001>.
- 배지현. “대화 물꼬는 뒀지만…‘북핵대응 중국역할론’ 호응 안 한 시진핑”, *한겨레*, 2022년 11월 15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067409.html>.
- 신기섭. “마크롱, 중국 방문 뒤 “대만 갈등에서 미국 추종하지 말아야””, *한겨레*, 2023년 4월 10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87173.html.
- 한센동(韩献栋). “2020 한중관계 정세보고 심포지움” 토론.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20년 12월 4일.
- Amber Wang. “Why are China and Singapore sending minesweepers on joint maritime drill mission?”, *South China Morning Post*, April 29, 2023. <https://www.scmp.com/news/china/military/article/3218843/why-are-china-and-singapore-sending-minesweepers-joint-maritime-drill-mission>.
- Chris Chase-Dunn, Roy Kwon, Kirk Lawrence and Hiroko Inoue. “LAST OF THE HEGEMONS: U. S. DECLINE AND GLOBAL GOVERNANCE”, *International Review of Modern Sociology*, Vol. 37, No. 1 (Spring 2011), pp. 1-29.
- Christopher Layne. “The Waning of U. S. Hegemony—Myth or Reality? A Review Essa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4, No. 1 (Summer, 2009), pp. 147-172.
- Christopher Wray. “The Threat Pos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o the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FBI*, July 7, 2020. <https://www.fbi.gov/news/speeches/the-threat-posed-by-the-chinese-government-and-the-chinese-communist-party-to-the-economic-and-national-security-of-the-united-states>.
- Javier Blas. “The Myth of the Inevitable Rise of a Petro yuan”, *Bloomberg*, February 27, 2023.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3-02-27/pricing-petroleum-in-china-s-yuan-sounds-inevitable-not-for-saudi-arabia#xj4y7vzkg>.

- Michael R. Pompeo. "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 *U.S. Department of State*, July 23, 2020. <https://2017-2021.state.gov/communist-china-and-the-free-worlds-future-2/index.html>.
- Summer Said. "Saudi Arabia Considers Accepting Yuan Instead of Dollars for Chinese Oil Sales", *The Wall Street Journal*, March 15, 2022. <https://www.wsj.com/articles/saudi-arabia-considers-accepting-yuan-instead-of-dollars-for-chinese-oil-sales-11647351541>.
-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White House*, October 12, 2022.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 金灿荣·刘丹阳. "拜登胜选后的中美关系走向", 前线2021年第一期.
- 任正非. "没想到美国下手这么狠, 华为营收会下降300亿美元, 海外手机下滑40%", *EEWorld*, 2019年6月18日. <http://news.eeworld.com.cn/mp/s/a67964.jsp>.
- 新华社. "王毅会见阿富汗临时政府代理外长穆塔基", 2022年7月29日. <https://baijiahao.baidu.com/s?id=1739660429768881906&wfr=spider&for=pc>.
- 新华社a. 《中华人民共和国、沙特阿拉伯王国、伊朗伊斯兰共和国三方联合声明》, 2023年3月11日. http://www.gov.cn/xinwen/2023-03/11/content_5745983.htm.
- 新华社b. 《中华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关于深化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的联合声明》, 2023年3月22日. http://www.gov.cn/xinwen/2023-03/22/content_5747726.htm
- 央广网. "关于中朝关系, 习近平说了三个“不会变” 央广网, 2018年6月22日. <https://baijiahao.baidu.com/s?id=1603944038132319826&wfr=spider&for=pc>.
- 张文宗. "美国霸权的衰落——迷思还是现实?", *世界知识*, 2009年第19号, 第6页.
- 中国外交部. "外交部就国务委员兼外长王毅访问阿富汗等答问", 中国外交部, 2022年3月25日. http://www.gov.cn/xinwen/2022-03/25/content_5681506.htm
- 中国外交部. "外交部发言人: 全球文明倡议是新时代中国为国际社会提供的又一重要公共产品", 中国外交部, 2023年3月16日. http://www.gov.cn/xinwen/2023-03/16/content_5747103.htm